

우리의 삶은 민주주의 위에 지어졌다 지난 겨울, 계속해서 이어진 두 시위에 관하여¹⁾

문주희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학생²⁾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였던 이들이 다져 놓은 터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난 2024년에 일어난 동덕여자대학교 공학 전환 반대 시위와 비상계엄 선포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제 경험을 떠올리며 일상 속 민주주의와 연대에 관하여 성찰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의 공학 전환 반대 시위의 양상은 학교와 학생의 민주적인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위의 전개와 양 측의 대처, 각종 가짜 뉴스와 외부인 출입에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옳고 그름을 논하고 있는 일입니다. 11월 5일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첫 남녀공학 추진 안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알게 된 학생들이 항의하여 11월 11일 총학생회와 처장단의 면담을 예정하였으나 처장단이 이유 불명으로 불참한 것으로부터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수의 학생은 학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며, 5인의 교수는 학생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시위가 일어나는 시점부터, 전개되는 양상까지 다양한 보도를 읽고, 진실한 정보를 찾으려 애썼으며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을 연대하였습니다.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공학 전환 반대 시위는 학교가 학생들 모르게 학교의 전반적인 제도, 설립 이념을 바꾸려고 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단순히 해당 사건을 남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거부하는 시위라고 일축한다면 시위의 원인을 젠더 갈등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젠더 갈등 프레임은 학생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고, 대부분의 언론사는 계속해서 자극적이거나 비난하는 투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학교의 민주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원인은 잊혀 갔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지키고,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해야 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민주주의를 가장 보장하고 가르쳐야 할 기관인 학교의 민주성이 무너지면, 학생들의 권리 또한 무너지기 쉽습니다.

1) 본 원고는 2025년 숙명여자대학교 창의융합연구소의 [민주주의의 창의적 실현을 위한 발표] 공모전 우수작으로 선정된 원고임.

2) joo302@sookmyung.ac.kr

그리고 한 달 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였습니다. 국회는 들어 가려는 자와 막는 자의 싸움이 일어났고, 순식간에 언론과 인터넷에는 가짜 뉴스가 퍼져 나갔으며 혼란스러운 정보에 모두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기숙사에 있었으며,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과 함께 숨죽인 채 그날 밤 내내 뉴스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강의는 없어졌고, 학교는 한산하였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이 내려지기 일주일 전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를 읽었습니다. 며칠간 <소년이 온다>의 내용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만일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모이지 않았더라면, 계엄령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시국 선언에 참여하였고, 여의도에 가서 숙명여자대학교 깃발과 함께 행진했습니다. 인터넷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위는 평화로웠으며 질서정연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평화롭게 나아가는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진전이 없어 실망하고 돌아온 날들이 있었지만, 다시 생각해 보았을 때 모든 날이 결과의 밑받침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나 하나가 소용이 있을까 생각하며 모인 한 명 한 명이 모여 그날의 거대한 인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 겨울, 두 가지 일들을 바라보며 느낀 바는 민주성이 사라지는 공간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권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지도자가 있는 경우 공간의 질서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배운 점이 있다면 그 공간의 사람들이 언젠가 다시 그것을 되찾아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연대해야 한다는 것도, 어쩌면 내가 그들 속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학생 시위는 같은 여자대학교 학생으로서, 학생의 의견 없이 진행된, 그리고 온전한 평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닌 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학생들을 연대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선언된 날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사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다니며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일한 만큼 돈을 받아 생활하는 것 모두 민주주의 위에 세워진 삶입니다. 민주주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으레 발언자의 정치 성향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법적인 정치 사상이 한몫한 탓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 성향, 어떤 당 등에 의해 결정되는 납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지켜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존재를 지난해 겨울에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시 생긴다면 저는 언제든 나서고, 연대하고,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추웠던 날들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